경남일보

경상국립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논문발표상 수상

박성민 | 승인 2022.11.17 16:51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와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대학원생 4명이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두발표상, 최우수 포스터발표상을 수상했다.

화학공학과 박사후연구원 전호영 씨와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박사과정 임재민 씨는 최우수 구두발표상을,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석사과정 김건희 씨, 정윤혜 씨는 최우수 포스터발표상을 수상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반도체 재료·공정, 기능성 박막·센서, 디스플레이·광전소자, 전자재료, HVDC·절연재료, 에너지하베스팅재료, 연료전지·수전해, 2차전지, 유·무기하이브리드, 산화갈륨기술, 계산과학, 저차원소재, 전기기술교육 등 여러 전기전자재료 분야에서 다양한 발표와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학술대회에서는 320여 편의 우수한 논문이 발표됐다.

경상국립대 박사후 연구원 전호영 씨와 박사과정 임재민 씨는 각각 '그래핀 전체 층을 활용한 고급 액상 박리 와 다양한 인쇄공정을 위한 일반 일크 제형 및 고성능 인쇄 에너지 저장 장치 연구', '고분자 중간층의 분자진동 동결에 의한 공액유기분자의 선택적 결정화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구두발표하여 최우수 구두발표상을 받았다.

석사과정 김건희 씨와 석사과정 정윤혜 씨는 각각 '고온 MLCC용 (K0.5Na0.5)NbO3-SrTiO3 고용체에서 Dy2O3가 결정구조, 미세구조 및 유전특성에 미치는 영향', '결정 성장 과정에 따른 무기 페로브스카이트 단결정 특성 변화'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여 최우수 포스터발표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2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와 두뇌한국21(BK21) 사업 'GNU 지능형 첨단소재 개척인재양성사업단', '스마트센서 전문인력양성사업단'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박성민기자



전호영 박사, 임재민 박사과정, 김건희 석사과정, 정윤혜 석사과정(왼쪽부터)./사진제공=경상국립대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성민